

박주택 시에 나타난 허무의식 연구

김원경*

-차 례-

1. 서론
2. 환멸적 허무의식
3. 소멸적 허무의식
4. 헤집어 놓은 충동과 허무의식
5. 결론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국문초록]

박주택 시인은 1986년 등단 이후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펼치며 폭넓은 시세계를 구축해왔다. 그의 시에 내재된 특유의 환멸과 폐허 의식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생득적인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황과 조건에서 느껴지는 외면성이 감정과 해석 같은 내면성과 만나 오랜 시간 지연되다가 언어로 발화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박주택의 허무의식은 존재론적 본질로서 고립과 윤패의 불안이 엄습할 때 생기는 정서이자 정신적 태도이다. 따라서 허무의식 속에서는 현실적인 모든 가치가 전복되거나 무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능동적 허무의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허무주의적 세계관은 그의 시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이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존재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주제어 : 박주택, 능동적 허무주의, 환멸, 폐허의식, 존재론적 시간, 공간, 현실
진복

1. 서론

박주택 시인은 1986년 「꿈의 이동건축」으로 등단하여 시집 『꿈의 이동건축』(1991), 『방랑은 얼마나 아픈 휴식인가』(1996), 『사막의 별 아래에서』(1999), 『카프카와 만나는 잠의 노래』(2004), 『시간의 동공』(2009), 『또 하나의 지구가 필요할 때』(2013)¹⁾ 등을 통해 꾸준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며 폭넓은 시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그의 시에 내재된 특유의 환멸과 폐허 의식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생득적인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황과 조건에서 느껴지는 외면성이 감정과 해석 같은 내면성과 만나 오랜 시간 지연되다가 언어로 발화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그의 허무의식은 존재론적 본질로서 고립과 유폐의 불안이 엄습할 때 생기는 정서이자 정신적 태도이다. 따라서 허무의식 속에서는 현실적인 모든 가치가 전복되거나 무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능동적 허무의식²⁾으로 볼 수 있다.

박주택의 능동적 허무의식은 시간적 존재 양상에 대한 탐구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90년의 경우 첫 시집에서부터 신화적 상상력으로 인한 탈시간성의 시적 전략은 실존적 내면세계를 통해 시간의 심미적 영역을 개척하였다. 또한 소멸과 상실되어 가는 세계에 대한 비

1) 박주택, 『꿈의 이동건축』, 문학과 세계사, 1991.

_____, 『방랑은 얼마나 아픈 휴식인가』, 문학동네, 1996.

_____, 『사막의 별 아래에서』, 세계사, 1999.

_____, 『카프카와 만나는 잠의 노래』, 문학과지성사, 2004.

_____, 『시간의 동공』, 문학과지성사, 2009.

_____, 『또 하나의 지구가 필요할 때』, 문학과지성사, 2013.

2) 존재가 허무의 공간 속에 놓이게 된다면, 그 앞에서 모든 법칙이 사라지게 되고 존재의 탐색은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니체는 허무주의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소극적 허무주의 또는 엄세적 허무주의와 ‘적극적 또는 능동적 허무주의’가 그것이다. 먼저 전자는 현실을 가상으로 여기고 부정함으로써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사라진 상태로 간주한다. 반면 후자는 지금까지 가정되어 온 모든 절대적인 것의 배후에는 ‘무(無)’가 숨어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이러한 확신을 근거로 종래의 모든 가치를 무로 돌리려 한다. 이는 모든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 하기 때문에 허무주의의 극복을 제시하는 적극적 면모를 지닌다. -강대석, 『니체와 현대철학』, 한길사, 1990, 68~69면.

극적 인식과 그것을 언어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 사이의 시적 긴장은 불협화음을 내며 역동적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세 번째 시집 『사막의 별 아래에서』에서부터 시적 자아의 내적 고뇌가 현실의 폐허와 환멸로 드러나는데 이러한 시선의 전환은 1990년대의 물질적 풍요에 대한 비판적 인식, 자본주의의 비정함, 그리고 환경오염 등 미시적 현실문제³⁾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된다. 2000년대 들어서는 네 번째 시집인 『카프카와 만나는 잠의 노래』(2004) 이후 90년대 연장선에서 세계에 대해 통찰하는 비판적 인식을 보여준다. 이때 허무의식은 죽음의식의 시간구조를 그리고 존재론적 자각과 함께 다른 생의 불가능성을 촉감과 직관을 통해 기시감으로 드러낸다. 관성화된 세계의 메커니즘을 파헤치며 시적 사유의 기반을 확대시킨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동공』(2009)에서는 시인은 몽환적인 이미지 배열을 통해 시간의 복잡성을 드러내는데 이는 현대 사회의 미시적 현실을 반영한다.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순간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며 시간의 유동성과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탐구한다. 익명성을 가진 도시인들이 범람하는 ‘강남역’이라는 장소성을 매개로 매 순간 도시를 관통하는 현대인들의 실상을 담고 있는 언어들이 쏟아진다. 이러한 능동적 허무의식은 단순히 인생무상을 통한 달관의 자세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허무성을 깨닫는 과정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박주택의 시는 비극적 세계에 대한 환멸과 폐허의식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능동적 허무주의의 표현이다. 이는 세계의 허무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탐구와 존재론적 힘의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허무와 죽음에 대한 성찰은 부조리한 현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열정적인 목소리로 구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상 속에 잠복되어 있는 모순을 고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저에는 생을 따뜻함으로 품고자 하는 인간애가 내재되어

3) “존재론적인 층위에서 리얼리즘적 저항의 담론을 구사하지 않고 있지만, 누구보다 우리의 주변 일상에 산재하는 미시적 권력으로부터의 억압상을 내밀하게 추적하여 충격하고 있으며, 생태적 담론을 내세우고 있지 않지만 누구보다 극명하게 반생명적인 요소에 질식하는 인간과 사물의 고통을 정서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홍용희, 「불협화음의 미의식과 열반의 정적」, 『현대시의 정신과 감각』, 천년의시작, 2010, 233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실에 대한 비극적 허무의식을 품고 있는 박주택 시인은 “생”이라는 폐허의 현장에 숨어 심원한 존재 탐색의 도정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박주택 시에 나타난 “허무의식”을 중심으로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변모양상을 살펴해보면서 존재론적 내면의 풍경들을 탐색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박주택 시의 본질과 그가 추구하는 시적 세계관을 이해하고자 한다.

2. 환멸적 허무의식

박주택의 시는 과감한 상징과 이미지 묘사를 통해 실존적 개인의 불안한 내면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그는 내면의 자기 부정을 통해 더 온전하게 자기 성찰을 이루려는 의도로 시를 쓰며, 이러한 기획의 중심에 있는 시의식이 바로 허무의식이다. 일상 현실과 단절된 고립적 삶을 동경하면서 자발적으로 자아를 윤패시키고자 하며 나아가 일상적 시간을 정지시킴으로써 의식의 순수한 상태, 최초의 순수한 시간을 회복하고자 한다. 시인이 소망하는 시간은 비일상적인 시간, 모든 시간의 짐을 정화시킨 시간으로, 이는 어느 정도 부정되어야 하는 현실이 강제하는 비극적 운명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시적 자아가 의식의 순수한 상태에서 성취하려는 것은 인간 본래의 정신적 자유와 의지라 할 수 있다.

첫 시집 『꿈의 이동 건축』에서는 “꿈, 잠” 등 몽상의 공간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신화적 상상력의 활력이 전면에 분출되고 있는데, “꿈”을 통한 몽상은 현실 원칙의 지배 질서를 이완시키기 위한 소산일 것이다. 인간과 자연, 주체와 대상 간의 위계적 문명의 질서 이전의 전일적인 신화적 상상력이 그의 시 세계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박주택 시편들은 현실 원칙에 길들여지거나 안주하지 못하고 걱정과 방황으로 뜨겁게 달구어져 있다. 그는 공허하고 불안한 내면의 공간에서 발효된 이미지들을 하나씩 불러내어 어두운 영혼의 그림자를 시의 전면에 유포시킨다. 그의 시에서는 세속과 신성, 삶과 죽음, 의식과 무의식, 현재와 과거가 서로 얽혀 있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 깎는 듯한 결핍, 오! 결핍/ 환상으로 올 수밖에 없어서 내가 그대 앞에
/ 빛으로 피어 시간의 팔에 안긴 말들의 뿌리를/ 소유할 수 있다면 그 미상의
不死의 빛으로/ 우리는 이름도 없는 말들의 땅으로 가면서 숲을 ‘숲’이라고
불렀다

- 「爬行」부분

박주택의 시에서 시적 화자는 이상세계를 꿈꾸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어 “깎는 듯한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결핍은 생득적인 것으로, 보들레르가 보여준 ‘저주받은 시인’의 자화상을 떠올리게 한다. “환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새”의 모습을 통해 본질을 추구하는 의식이 차단되어 상실과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시인의 운명을 목격할 수 있다. 이처럼 「파행」을 통해 황폐한 세상을 고통스럽게 지나간 흔적을 느낄 수 있다. 황폐한 세상의 끝에서 시적 화자는 “상징의 빛”을 바라본다. 그 빛은 알지 못하는 세계의 비밀스런 어떤 징후를 계속 해서 감지하게 한다.

그의 시는 단순히 현실에 대한 부정이나 도피가 아니라 능동적 허무의식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는 현실의 불안과 공허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탐구와 존재론적 힘의 의지를 바탕으로 인간 본래의 정신적 자유와 의지를 노래한다. 이러한 시적 여정은 독자에게 단순한 절망이 아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인의 시 세계는 능동적 허무의식을 통해 현실의 벽을 넘어서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부정이나 도피가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인의 치열한 자기성찰과 존재론적 탐구의 결과물이다. 두 번째 시집 『방랑은 얼마나 아픈 휴식인가』에서 시인은 폐허의 풍경을 보다 정태적으로 묘사하면서 황폐한 현실에 대한 허무의식을 환멸과 자기 모멸감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여행자처럼 돌아온다 / 저 여린 가슴/ 세상의 고단함과 외로움의 휘황한
고적을 깨달은 뒤/시간의 기둥 뒤를 돌아 조용히 돌아온다// 저 오랜 투병

의 가슴/ 집으로 돌아온다 /지친 넋을 떼어 바다에 보탠 뒤/ 곤한 안경을
 깨워 / 멀고 먼 길을 다시 돌아온다

- 「방랑은 얼마나 아픈 휴식인가」 부분

시적 화자의 내면적 고통과 허무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여행자처럼 돌아온다 / 저 여린 가슴/ 세상의 고단함과 외로움의 휘황한/ 고적을 깨달은 뒤”라는 부분에서 화자가 세상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깨달은 뒤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자가 겪은 내적 고통과 절망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저 오랜 투병의 가슴/ 집으로 돌아온다 /지친 넋을 떼어 바다에 보탠 뒤/ 곤한 안경을 깨워 / 멀고 먼 길을 다시 돌아온다”는 부분에서는 화자가 오랜 시간 내적 투병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자의 고통과 절망이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주택 시인은 90년대 걸으로 보기에 풍요롭게 보이는 삶의 모습 속에서 폐허와 소멸의 징조를 발견하고 그 곱아 있는 현실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를 위해 그는 시적 자아의 감정과 사유를 최대한 절제하고 대상을 한 순간의 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시인의 이러한 시적 태도는 실존적 사유를 통해 세계와 자아가 절대적인 불화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세계가 적극적인 전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아가 절대 고독의 처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의 일환으로 시인은 세계와의 의사소통적 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인에게 있어 이러한 새로운 삶의 질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절대 고독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순수한 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박주택의 시세계는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존재에 대한 탐구를 보여준다. 이는 그의 초기 시집부터 일관되게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폐허의식과 그 이면에 놓인 것들에 대한 탐구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시적 주제를 유지하면서도 관찰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며 자신의 시적 세계를 확장시켜 나갔다. 특히 세 번째 시집 『사막의 별 아래에서』에서는 현실의 폐허와

환멸이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허무의식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변주되어 나타나며 "운명을 갈아먹고 있는 풍경"은 폐허의 모습을 보여준다.

방이 있다 그 방은 물에 젖어
시간에 떠 있다

늪은 어머니가 증풍으로 누워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고

삼십년을 넘게 건사해 온 장애 아들은
못에 노끈을 매고 있다

말 못하는 어머니, 사지를 뒤틀며
의자 위에 선 아들을 올려다본다

툭! 의자가 굴러가고
노끈에 목을 맨 아들이 킁킁거릴 때

그 온몸으로 쥐어짠 눈물의 힘으로
단칸방 하늘로 올라간다

- 「하늘로 가는 단칸방」 전문

「하늘로 가는 단칸방」에서 시적 화자는 자본주의의 냉정한 얼굴을 비판하고 있다. 이 시에서 우리는 장애인이 단칸방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견고한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을 수단화하고 억압하며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이는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다. 자본주의는 생명의 가치를 경제활동의 유무로 판단하고 존망을 결정한다. 이 시는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재단할 수 없다는 상징을 통해 현실 속의 허무의식을 드러내며 세계의 부조리를 직시하고 인간적 환멸을 느끼며 이를 허무의식으로 표출하고 있다. 더 나아

가 세계에 대한 환멸과 자기모멸로서의 허무의식은 풍자와 현실 비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시인의 렌즈는 이 세계의 단면들을 집요하게 포착하며 그 메커니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박주택은 90년대 유행 담론과 상관없이 세계와 자아의 관계성을 직시하며 자신만의 실존주의적 시세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과 허무를 탐구하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허무주의적 관점의 미의식을 성취하게 된다.

구름의 갈피에서 스며 나오는 울적한 물방울이 있고
수상한 권태로 몸이 불룩해질 때 낚싯대를 메고 중랑천에 가자
훈향 그득한 腐植土를 지나 과꽃 핀 동부간선도로 아래
흑갈색 물 겹겹이 흐르는 중랑천에 가자
그곳은 이따금, 얼빠진 고니가 찾아와 몸 속에 남아 있던 힘을 모아
밥알을 찾고 사철 붉가시나무가 겸허하게 말라 있는 곳
깊은 질석이 있는 곳 그쯤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질푸른 낚싯대를 던지자 그리고, 허기진 물고기가
굽은 등을 오므적거리며 다가올 때면 숨을 죽인 채
기름빛 물을 바라보자 우리, 세상 소모의 구석에 누군가의 먹이가 되고
누군가를 먹이 삼아 잔인하게 삼켜버렸으니
물고기도 개의 먹이가 될 뿐 마침내, 창백한 흙으로 돌아갈 뿐이니
가끔씩, 구름의 갈피에서 울적한 물방울이 흘러나오고
늑늑한 유희 때문에 몸이 무지룩할 때면 낚싯대를 둘러메고 중랑천에 가자
과꽃 핀 동부간선도로를 타박타박 걸어 겹겹의 진흙 속으로 가자

- 「중랑천에서 고기잡이」 전문

시적 화자는 중랑천의 오염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구분별한 행위로 인해 파괴되어 가는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다. 이 시적 화자는 “울적”하고 “수상한 권태로 몸이 불룩해질 때 낚싯대를 메고 중랑천에 가자”고 권유한다. 그 대상은 물론 불특정 다수이다. 화자가 고기잡이를 하러 가자고 권유하는 중랑천은 “흑갈색 물

겹겹이 흐르”고 있고, “이따금, 얼빠진 고니가 찾아와 몸속에 남아 있던 힘을 모아/ 밥알을 찾고 사철 붉가시나무가 겸허하게 말라 있는 곳”이며 “깊은 질식이 있는 곳”이다. 또한 “기름빛 물” 속을 “허기진 물고기/굵은 등을 오므적거리며 다가”오는 곳이다. 이처럼 물은 썩고 물고기는 병들었으며, 붉가시나무도 말라 죽은 그 악취가 풍기는 중량천에 낚시를 하러 가자고 권유함으로써 화자는 새로운 시적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오염되고 파괴된 현실 세계 대한 풍자이고 비판이다. 이는 박주택의 시가 지닌 중의성, 그 중에서도 문학의 전통적 미덕과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내형적 중의성에 있다.⁴⁾ 이러한 중의성은 시집 『사막의 별 아래에서』에 수록된 시편들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징적 요소이다. 「거룩, 거룩, 거룩」에서는 “올가미에 잡힌 오소리가/냉동고에 얼려 있다/등돌린 부부의 엑기스로 부활하는 날/가계부와 월급봉투의 불화도 견히고/고장난 태엽도 차르르르 돌아간다면/오소리의 殺身成仁?”이라면서 현실을 풍자한다.⁵⁾ 인간이 가진 동물적 욕망 앞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생명인 “오소리”가 “짧은 다리를 바짝 오그린 채/두 눈을 치뜨는”모습을 통해 못생명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인간의 자만을 “거룩, 거룩, 거룩”하다고 근엄한 말투로 강조하여 비꼬는 희극적 연출, 풍자적 수사를 통해 환멸적 허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박주택의 시에 드러나는 환멸적 허무의식은 단순한 체념이 아닌 능동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4) “말투는 근엄하고 날개의 말들은 정돈되어 있으며, 예의 너스레를 떠는 화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모여 꾸미는 일은 중의적인 현실 풍자이다. 나는 이 시에서 보여준 박주택의 방법이 하나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학이 골몰해 온 언어적, 수사적 기체들은 중용되었고 거기에 희극적 연출이 가미되었다. 이 시가 만일, 형식에 배려하지 않은 채 중량천의 오염을 고발하는 내용에 그쳤다면, 천연색 사진을 곁들인 일간신문의 환경고발 기사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희중, 「문명과 시의 불화」, 신덕룡 편, 『초록 생명의 길』, 시와 사람, 2001. 319면.
- 5) 배한봉, 「90년대 생태시의 상상력과 여성회복의 꿈」, 『고향논집』 제40집, 2007, 13-15면.

3. 소멸적 허무의식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환멸적 허무의식은 네 번째 시집 『카프카와 만나는 잠의 노래』(2004)부터 변별성을 보여주며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계기가 되는 것은 죽음으로 인한 시간의 모티브에 있다. 「시간의 육체에는 별레가 산다」에도 “시간의 육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간의 틈”, “시간의 얼룩” 등 시간과 관련된 이미지가 핵심적인 모티프로 자리잡고 있다. 이때 시간은 소멸을 내재하고 있다. 박주택의 허무의식은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소멸해갈 것이므로 실제의 표상 안에서는 참된 의미를 얻을 수 없다는 사고에 기초한다. 죽음이란 모든 존재자들의 근본 성격이라서 그것들은 필멸의 운명을 지니고 있으며 죽음의 세계만이 현상하는 모든 사물들이 생멸이나 변화와 무관하게 상주할 수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이 여기서 나타나는 허무의식은 죽음을 삶의 진정한 구원으로 간주함으로써 그것에 기꺼이 투신하고자 하는 죽음에 대한 지향을 특징으로 하며 모든 존재자의 존재성을 소멸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그의 허무의식은 일종의 “죽음의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인의 죽음의식은 외부 세계나 현실 세계로부터 단정되어 있거나 유폐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때 시인이 시적 자아의 고립감이나 유폐의식을 효과적으로 표출해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티프는 “잠”이다. 원천적으로 잠은 인간의 의지를 지금 여기에 붙들어 매어두며 현실로의 복귀를 가져온다. 모리스 블랑쇼가 잠은 세계에 대한 무관심이며 부정이지만 자아를 세계 속에 보존해주며 이 세계를 긍정하는 부정이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⁶⁾ 이 잠이 내포하고 있는 이중적이면서 복합적인 의미는 죽음에 대한 지향을 해명하는 데 긴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예측할 수 있게

6) 모리스 블랑쇼에 따르면, 잠은 본질적으로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잠은 중심과의 내밀성이며 인간은 잠을 통해 분산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이 있는 “이곳”에 온통 집약되어 있으며 이 지점이 바로 인간의 궁극적 자리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잡자는 곳에 자신의 위치를 고정시키며 세계를 고정시키게 될 뿐이다. -모리스 블랑쇼, 박혜영 옮김, 「잠과 밤」, 『문학의 공간』, 책세상, 1990, 365-368면 참조.

한다. 그가 인식하는 비극은 사멸해 가는 존재들과 죽음을 탐닉하고 욕망하는 데 기울어져 있다. 죽음을 통해 소멸과, 상실되어 가는 세계에 대한 비극적 인식과 그것을 언어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 사이의 시적 긴장이 빚어내는 시로 이해할 수 있다.

(중략)

비로소 나는 복도의 문을 열었다
비가 멎고, 싸우고 난 뒤의 불안한 평온이
사방에 퍼져 있었다. 공기가 젖은 어깨를 말리고 있었다
발자국에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막 열쇠로 지옥 같은 문을 잠그고 돌아설 때쯤
땀기 없는 냄새가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무덤에서 냄새의 뿌리로 태어난 수많은 구더기들이
시간의 육체 속으로 흩어져 갔다

- 「시간의 육체에는 벌레가 산다」 전문

박주택의 네 번째 시집 『카프카와 만나는 잠의 노래』에서는 독백적 진술을 통해 유쾌 내면의 공간에서 죽음에 의한 소멸적 허무의식이 전개된다. 그의 허무의식을 특징짓는 것은 죽음에 대한 지향에 있다. 사실 죽음 의식은 90년대 시 뿐만 아니라 그의 시세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로 작동한다. 그는 죽음을 새로운 탄생과 시초의 시간을 복원할 수 있는 선행단계로 간주한다. 죽음은 탄생 및 재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의 시는 죽음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현재에 미래에 획득될 가치를 부여하고 미래의 시간을 예언적으로 불러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 속으로 소멸되는 것을 형상화함으로써 비극적 허무의식을 목격할 수 있다.

시간은 삶과 동일화를 이루며 타자와 교환하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를 보장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분절시키거나 하루를 스물 넷으로 나누고 있지만 지속과 영속의 측면에서는 사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담겨 슬픔과 기쁨, 추억과 환상을 계속합니다. (.....) 제 시는 시간과의 대립과 화해, 저항과 귀속과 같은 체험을 눈여겨 재생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분명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자와 만나 어떤 목적에 자신을 바치듯이 시간의 육체와 만나 대화를 계속합니다. “시간의 주름”과 “시간의 얼룩” 그리고 “시간의 벌레”는 이때 만난 비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여기서 소멸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소멸하는 것들은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 시간은 비극의 얼굴 같은 '얼룩'을 남기기도 하는 것이다. 흔적은 대상 스스로가 남기는 존재의 잔해가 아니다. 그것은 대상의 소멸을 부정하거나 유예시키려는 특정한 주체의 심리적 산물이자 욕망이다. 「미라」라는 시를 통해 보면 생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고 시간의 흐름에 풍화된 비극적 삶의 인식할 수 있는데 이때 삶은 시간과 지루하고 힘겨운 싸움이자 기억과 망각의 충돌이 빚어내는 욕망은 불협화음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내면의 격렬함으로 인해 행과 행 사이, 연과 연 사이, 한 시의 구조 자체가 중층성을 가지고 언어의 불연속성이 그려진다. 유한자인 인간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박주택 시인의 시는 “너희들은 모두 잊혀질 것”(「유적의 생애」)이라고 예고한다. 이는 인간존재의 운명적인 비극성과 한계를 가리킨다. 인간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승산 없는 싸움에 매달리는 것인가? 그것은 기억이 망각을 지배하는 동안만큼은 이 운명적 비극이 상대적으로 연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가 버리는 것들이 내는 둔탁한 소리는 / 어둠을 닮은 것이라기보다 저 떠나는 자리에 남겨질/ 자신의 중심이 두려운 것이다.”(「자리」) 죽음에 직면한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것은 죽음이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통로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존재가 송두리째 잊힌다는 것에 대한 불안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⁸⁾ 따라서 죽음에 대한 허무의식과 불안은 기억을 복원하여 잃어버린 시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

7) 박주택, 오형엽 대담, 『현대시』, <환멸, 기억, 망각, 몽환>, 2004. 65면.

8) 고봉준, 「삶을 삼키는 시간들」, 『시작』, 2010. 453면.

한 의지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베르그송은 인간의 기억의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기계적인 운동”에 따른 ‘습득된 회상’, ‘의지적인 기억’으로 암기에 의해 습득되거나 동일한 노력의 반복에 의존함으로써 얻어진다. 즉 이미지의 형태하에서 과거를 환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위로부터 초연하거나 무익한 것을 중요시하고 꿈으로 꾸고자 해야 한다고 말한다.⁹⁾

시인의 내적이며 자족적인 세계 추구에는 이른바 ‘변형’의 원리¹⁰⁾가 깃들여 있다. 시간의 흐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일상적 시간과의 상호작용을 제거하여 사물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때 이를 이끄는 것은 “심미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입을 열지 않아 어금니가 아픈 하루
다시는 가지 말하던 술집에 앉아 기우는 저녁해를 바라본다
저 해의 상형문자, 저 곳에는 어떤 망령의 책들이 있길래
기다림의 문장들이 실명한 채 바람에 나부낄까
얼룩진 의자 위로 먼지가 귀순을 꿈꾸며 부유하고 있다
먼지에는 울음소리가 박혀 있다

다시 태어나리라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남은 생애를 저 저녁의 남은 빛에 맡기리라
바람을 읽으며 누군가는 잘못 씌어진 기록에
세상과 맞서 싸운 길 위에서 어이없는 웃음을 지을 것이며
또 누군가는 잠이 들다 깨어
스스로 독이 되는 긴 편지를 쓰리라

해가 진다, 진다 저녁해야, 바람이 부냐

9) 베르그송, 홍경실 옮김, 『물질과 기억』, 1991, 교보, 89면.

10) 이는 포지올리가 이른바 ‘예술의 비인간화’를 재해석한 것이다. 포지올리는 ‘예술의 비인간화’가 추상주의에만 적용 가능한 개념이므로 미래파의 기계의 미학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 박상규 옮김, 『예술의 비인간화』, 미진사, 1998. 69면.

너 지는 곳, 붉은 핏물로 하늘을 곱게 물들이며
운명을 하나씩 네 속에 가두고 이별을 피워 올리는 곳
네가 길이라고 타이른 수많은 기다림이 좁이 슨 채 울음을 터뜨린다
창에 수의가 어른거린다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사랑의 모습이다

-「판에 박힌 그림」 전문.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심미적 감정은 고독감다. 고독감은 근본적으로 존재 가치의 상실과 생활공간으로부터의 분리가 가져오는 폐쇄인의 감정으로 볼 수 있다. 윤패와 죽음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시적 자아는 고독감과 외로움으로 생에 대한 갈망과 존재 가치 회복의 드러낼 수밖에 없다. “기우는 저녁해”는 시간의 흐름이 소멸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하며 “얼룩”과 “먼지”는 사물의 원형이 퇴색되고 사라지고 남은 흔적을 말한다. 이를 통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훼손되고 소멸한다는 비극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의 허무의식은 유한한 존재가 “수의”를 상상하며 죽음의 극단으로 의식을 밀고 나감으로써 역설적으로 생의 현존을 느낄 수 있다.

이윽고 잠잠하리라, 망각은 當代를 다스리고
시간의 저편 대지 위에 따로이 모든 회억은 잠시 자리니
다시 長江의 바람이 불어오면 뉘우침도 없이
저녁의 그대로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우리 있는 이곳
생명의 춤고 뜨거운 육체는 미치도록 여기 머물러 죄를 남기고
크게 자란 그림자만이 당대를 떠돈다, 들어보라
체 몸을 구부려 자신 속에 드는 고요한 밤
이렇게 발자국 소리조차 바람을 읽는 밤이면
자근자근 생의 부름에 떨떠름한 혀도 응대하리니
마지못하던 태양도 육체의 구석구석을 비추어주리
밥의 불편, 짝 찬 감옥의 불편, 진흙 속에 뒹굴어
젖은 옷의 불편 다시 강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마침내 가라앉을 것들이 눈을 홑뜨는 채로 머릿속에
뿔비는 동안 노래는 여기서도 멀고
견딜 수 없는 것들은 발이 시리도록 몽상에 젖는다

-「장엄한 近日」 전문.

시적 화자는 “하리라”, “들어보라”, “비추어주리” 등 장엄한 어조로 노래하는데 이는 시인의 허무의식이 “망각”을 통해 허무까지도 긍정하는 운명애를 획득함으로써 능동적 허무의식으로 진입한 것을 목격할 수 있다.¹¹⁾ 이는 기억이 망각의 회로 끝까지 질주할 때 존재의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은 더 극명히 빛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허무의식은 존재론적 자각과 함께 다른 생의 불가능성을 촉감과 직관을 통해 기시감으로 드러낸다. 관성화된 세계의 메커니즘을 파헤치며 시적 사유의 기반을 확대시킨다. 『시간의 동공』에서는 몽환적인 이미지의 배열을 통해 시간의 복잡성을 드러내는데 이는 근대적 시간관에 대한 비판이자 반유토피아적 충동을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몽환적인 세계는 현대 사회의 일상에서 쉽게 간과되는 순간들이며 시적 화자는 시간의 유동성과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미시적인 측면에서 탐구한다.

그리하여 시간이란 계급을 재편성하는 과정이란 느낌이 들 때 / 햄버거는
입속에서 혈관을 터뜨리고 커피는 저녁처럼 어두워졌다 / 순환하는 인간들, 청
춘은 중년이 되고 또 다른 청춘은 / 이곳을 가득 메우며 노년에 이르게 됨을
눈치채지 못한다(중략)

- 강남역

익명성을 가진 도시인들이 범람하는 ‘강남역’이라는 장소성을 매개로 매 순간 도시를 관통하는 현대인들의 실상을 담고 있는 언어들에 쏟아진다. “시간이란 계급을 재편성하는 과정”이라는 표현은 시간의 흐

11) 오형엽, 「망각의 시학」, 『주름과 기억』, 작가, 2004, 189면.

름이 개인의 삶과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암시한다. 햄버거와 커피의 이미지는 일상적인 소비 문화를 상징하며 이러한 소비가 인간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다. 특히 "햄버거는 입속에서 혈관을 터뜨리고"라는 표현을 통해 현대인의 삶이 건강과 연결된 위협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음을 암시한다. "순환하는 인간들, 청춘은 중년이 되고 또 다른 청춘은" 부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 존재의 반복성을 강조한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며 이는 현대 사회의 고립감과 허무함을 드러낸다. 시적 화자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세상의 허무함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재조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제 남은 것들은 자신으로 돌아가고
 돌아가지 못하는 것들만 바다를 그리워한다
 백사장을 뛰어가는 흰말 한 마리
 아주 먼 곳으로부터 걸어온 별들이 그 위를 비추면
 창백한 호흡을 멈춘 새들만이 나뭇가지에서 날개를 쫄다
 꽃들이 어둠을 물리칠 때 스스럼없는
 파도만이 육신거림을 넘어간다
 만리포 혹은 더 많은 높이에서 자신의 곡조를 힘없이
 받아들이는 발자국, 가는 핏줄 속으로 잦아드는
 금잔화, 생이 길쭉길쭉하게 자라 있어
 언제든 배반할 수 있는 시간의 동공들

— 「시간의 동공」부분

만리포 바다 앞에서 시인은 꿈을 보고 있다. “꽃들이 혁대”를 내질러 “바람의 등을 후”려치고 파도의 흰 거품이 한 마리 말이 되어 내달리는 꿈. 그 위에는 별이 떠 있고 새들은 날개를 쫄다. 마치 샤갈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이 시에서 우리는 꿈/현실-현실/꿈의 경계를 한눈에 집어넣어 느낄 수 있다. 이는 몽환의 시간의 교차에서 오는 어지러움과는 다르다. 이 ‘환상적 현상’은 공간 특유의 단단함을 내포한다. 우리는 지

금 당장 만리포 앞 바다에서 달려오는 흰말과 그 말발굽 소리를 ‘볼’ 수 있다. ‘시간의 동공’을 통하여 몽환적 시간 위에 쌓여 올라가는 환상적 현상과 마주한다. 『시간의 동공』은 시간이 소멸됨으로써 유한한 존재는 허무의식을 느끼지만 이때 느끼는 허무의식은 삶의 역동적 움직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박주택은 고통스러운 삶을 정화해나간다. 부당함을 폭로하고 잘못된 생애를 고백하면서 불안을 불안¹²⁾으로 끌고와서 생을 더 나은 생으로 만들기 위해 불멸의 밤을 지새우며 허무의식의 옷을 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인의 집요한 존재에 대한 탐구는 무가치한 현실시간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통해 삶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시적 여정은 근대적 시간관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출발하여 상상력의 힘을 빌려 순간의 시간들을 의식 위로 불러오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성과 존재론적 지평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재구성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영혼의 정화와 “이후”에 대한 모색을 시도한다. 이는 곧 사라질 소멸의 시간 속에서도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능동적 허무주의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4. 헤집어 놓은 충동과 허무의식

여섯 번째 시집 「또 하나의 지구가 필요할 때」에서는 소음과 혼란 충동과 충동 등 파토스의 힘이 이 세계를 헤집으며 그 속에서 생겨나는 틈을 응시한다. 이 틈은 위계질서가 공고한 세계에 대한 각성을 위해

12) “네 번째 시집까지는 세상에 대한 불화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 관심이 높았습니다. 또한 내면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불안과 욕망들의 음성을 받아 적고 싶었습니다. 특히 소멸이라든가 죽음 같은 것에 천착해서 시적 세계를 이루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의 동공』 시집에서는 개인적인 상황이나 조건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세계를 보는 관점이 통합과 정합을 지향했다고나 할까요. 나이를 먹어가는 만큼 용서와 관대가 인간과 세계를 포함한다고나 할까요.”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수이, 박주택 대담, 『시사사』, 2010.1월호, 44집, 26면.

일부러 기획된 틈이다. 시는 언제나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을 품어왔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관습을 부정해왔다. 허무주의는 이러한 부정의 미학의 핵심적인 미적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존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현실의 모든 가치와 질서를 무화시키려는 허무의식의 발현이기도 하다. 시인에게 있어 이는 단순한 부정이나 거부가 아닌 실존적 체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이를 시를 통해 내적으로 구현해낸 것에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능동적 허무의식은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학의 미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고 무화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적 주체성과 세계관을 창출해내고자 했다. 이는 시인의 실존적 탐구와 자기 형성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시를 통해 자신만의 실존적 진실을 추구하고자 한 시인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례 집행자는 시신에 화장을 하고 있었다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고 언제든지 흐느낌은 냉동 시신을 녹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짐승 가죽처럼 노란 얼굴, 서늘하게 풍겨 나오는 일사귀, 희미한 촉감, 이제 떠난다면 무서운 귀신으로 남을 것인 영혼 루주로 입술을 덧칠하고 검은 눈썹을 그리는 장례 집행자는 채광창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에 반이 환해졌다 바닥을 훑으며 비로소 자신이 되는 것, 죽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자신과 만나게 되는 것, 구부정하게 숙여 거즈로 얼굴을 닦아내는 장례 집행자의 눈빛에서 등을 돌리는 창문들 파르르 떨다 깃털로 가라앉는, 수북한 찰기 잃은 기억의 곤죽들 어느덧 시신은 자신으로 바뀌어 시트 위에 창백하게 누워 있다. 시신을 바라보는 자들 장례 집행자의 손에 두 다리는 묶이고 손도 가지런히 묶인 채 입을 틀어막은 거즈에 숨이 막히는 듯 이제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노란 짐승가죽 속을 서둘러 빠져나온다

-「장례 집행자」

존재자들의 세계를 넘어 그들을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빈 바탕이 등장한다. 즉 공(空)이라 불리는 실재의 세계를 드러내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장 사상에서 허무주의를 無로 인식한다고 볼 때 “없음”으로 인해 실재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집에서 허무의식은 기시감

으로 느끼는 것으로 빈공간의 이미지를 거느린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묘사나 현실의 재현에서 담아낼 수 없는 것을 기필코 담아내려 한다. 이를 통해 죽음이라는 절대적 타자와 대면하게 된다. “죽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자신과 만나게 되는 것” 이 세계는 보이는 것만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귀신”, “유령”이 귀환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리게 된다. 사라지고 버려지고 망각된 모든 것이 회귀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말할 수 없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 “사라진 것들”을 “보일” 수 있게 하거나 다시 “나타나게 하”려는 응시의 힘에서 비롯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 사라진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데리다가 말한 ‘어떤 가시성의 출몰 “이자”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자명한 의식으로는 느낄 수 없는 흔적과 기미를 끝내 드러내는 의지에 있다. 즉 데리다의 말을 인용하자면 “부재로써 현전” 하는 것이다. 이 “유령” 이미지는 물신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적 상품미학의 유혹을 비판하고 상품 전략이 가져오는 환각적 쾌락을 비틀고 풍자하고 있다.¹³⁾

자본주의 현실에서는 “의자에 등을 기대 채 전광판의 숫자 누구의 것도 아닌 뻑뻑한 눈동자들 이처럼 흘러가서 결코 고이지 않는 것이 깊은 비참으로 고난을 마칠 때까지 창밖을 밝히는 신문, 양복 안쪽의 지갑, 그리고 진심이 일 때까지 억누르는 증권시황표 (‘증권거래소’)가 즐비하고, “우리는 완전한 기억처럼 사육되며 고삐처럼 기억된다.” 박주택 시인은 현대 자본주의의 일상에 견고하게 녹아있는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고 있는 인간들의 동선을 집요하게 따라가서 파헤치고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작품 세계는 자본주의 사회의 폐쇄와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출발한다. 시인은 지구가 더 이상 둥근 모습이 아니라 욕망으로 팽창하고 절규로 가득 찬 일그러진 모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세계에 대한 허무의식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잊혀져 가는 존재의 본질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인의 능동적 허무주의는 현실을 비판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

13) 이찬, 「망각의 존재론, 아나크로니즘의 현상학」, 『시현실』, 봄호 제58호, 2014.3, 244-249면.

한 추동력이 된다. 효율성과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잊혀져가는 것들을 복원하고자 하는 시인의 노력은 자본주의 논리에 휩싸인 세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시인은 "또 하나의 지구"를 절실히 요청하며 이는 현재의 지구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엉망이 되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 인식 속에서도 언젠가는 지구에 희망이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을 내재하고 있다. 결국 그의 시 세계는 지독한 우울과 절망의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아름다운 절규이자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망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박주택 시에 나타난 “허무의식”을 중심으로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변모양상을 살펴보면서 존재론적 내면의 풍경들을 탐색해보았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허무주의는 현실 너머의 세계가 일상영역에 잠시 머물렀던 흔적을 집요하게 포착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시인은 실체 없고 덧없는 세계의 흔적들을 온몸으로 반응하며 이를 통해 세계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인의 태도는 유행하는 담론과 상관없이 세계와 자아의 관계성을 직시하고 당대가 뱉어내는 시대의 과장을 시 속에 녹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존재에 대한 물음을 통하여 자아와 세계는 절대적인 불화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세계는 적극적인 어떤 전망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아는 절대 고독의 상황에 내던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의 시가 거느리고 있는 “허무의식”은 그의 세계관과 존재론적 내면을 잘 보여준다. 그의 90년대 시에서는 신화적 상상력과 탈시간성을 통해 폐허의식이 드러났다면 2000년대 이후 작품에서는 죽음을 통한 소멸의식과 반유토피아적 충동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새로운 존재 양태를 획득하기 위한 통과제의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죽음은 이전의 시간을 소거하고 근원적인 처음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박주의 시 세계에는 존재론적 본질에

대한 실존적 회의와 세계에 대한 불가지론적 한계 인식, 시대에 대한 환멸 등이 드러난다. 이는 소음과 혼란, 충돌과 충돌 등의 반유평타피아적 충돌으로 표출된다.

이처럼 박주택의 시세계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과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능동적 허무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Nihil Consciousness in the City of Park Housing

Kim, Wonkyoung(Kyunghee University)

The active nihilism of Park Ju-taek is noteworthy in that it is the result of an exploration of the temporal mode of existence. In the 1990s, the poetic strategy of timelessness through mythical imagination, which was evident in his first poetry collection, pioneered the aesthetic realm of time through the existential inner world. Moreover, the poetic tension between the tragic awareness of a disintegrating and disappearing world and the effort to establish it in language is dynamically portrayed in a discordant manner. However, a different aspect has been observed since the 2000s. From his fourth poetry collection "Lullaby Meets Kafka" (2004) onwards, Park Ju-taek's poetry has gradually shifted from the personal dimension to the socio-historical dimension, revealing a critical worldview that sharply penetrates life and the world.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transformation of how Park Ju-taek's poetry perceives the world, focusing on the "consciousness of nihilism," and explore the landscapes of his ontological inner world. Through this, it aims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Park Ju-taek's poetry and the poetic worldview he pursues.

Key words : Park Ju-taek, consciousness of nihilism, penetrates life,temporal mode of existence

[참고문헌]

■ 기본자료

- 박주택, 『꿈의 이동건축』, 문학세계사, 1991.
----, 『방랑은 얼마나 아픈 휴식인가』, 문학동네, 1996.
----, 『사막의 별 아래에서』, 세계사, 1999.
----, 『카프카와 만나는 잠의 노래』, 문학과지성사, 2004.
----, 『시간의 동공』, 문학과지성사, 2009.
----, 『또 하나의 지구가 필요할 때』, 문학과지성사, 2013.

■ 단행본

- 고봉준, 「삶을 삼키는 시간들」, 『시작』, 2010.
강대석, 『니체와 현대철학』, 한길사, 1990.
랭어,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서우석·임양혁 옮김, 청하, 1992.
모리스 블랑쇼, 박혜영 옮김, 「잠과 밤」, 『문학의 공간』, 책세상, 1990.
박주택, 『현대시의 사유구조』, 민음사, 2012.
----, 『감축』, 뿔(웅진), 2011.
베르그송, 홍경실 옮김, 『물질과 기억』, 교보, 1991.
이희중, 「문명과 시의 불화」, 신덕룡 편, 『초록 생명의 길』, 시와 사람, 2001
오형엽, 「망각의 시학」, 『주름과 기억』, 작가, 2004.
오르테가 이 가세트, 박상규 옮김, 『예술의 비인간화』, 미진사, 1998.
최정식, 『서양 고대 철학의 세계』, 서광사, 1995.
홍용희, 「불협화음의 미의식과 열반의 정적」, 『현대시의 정신과 감각』, 천년의시작, 2010.

■ 논문 및 기타 자료

- 김수이, 박주택 대담,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시사사』, 2010
박주택, 오형엽 대담, <환멸, 기억, 망각, 몽환>, 『현대시』, 2004.
배한봉, 「90년대 생태시의 상상력과 영성회복의 꿈」, 『고향논집』 제40집, 2007.
이찬, 「망각의 존재론, 아나크로니즘의 현상학」, 『시현실』, 봄호 제58호, 2014.